

『奎章閣書目』을 통해 본 규장각 장서 *

박 현 순 **

1. 머리말
2. 『규장각서목』의 현황과 작성 시기
 - 1) 『규장각서목』의 현황
 - 2) 『규장각서목』의 작성시기와 구성 상의 특징
3. 규장각 장서의 변동
 - 1) 도서의 유입
 - 2) 도서의 內入과 移轉
 - 3) 장서 수의 변동
4. 맺음말

1. 머리말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 통감부시기, 총독부시기에 걸쳐 수집, 생산된 각종 서적과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당초 여러 기관에 나누어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7년경부터 규장각, 홍문관, 춘방, 집옥재, 북한행궁 등의 도서가 ‘帝室圖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고, 제실도서는 1911년 지방의 史庫에 보관 중이던 도서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조선총독부고도서’로 일컬어졌다. 이 자료들은 1930년 무렵 경성제국대학도서관으로 이전된 후 ‘규장각도서’로 명명되었다.¹⁾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하지만 ‘규장각도서’에 포함된 도서의 연원을 따져보면 원래의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도서 외에도 집옥재, 시강원, 홍문관, 북한행궁 소장 자료, 史庫 소장 자료, 대한제국기 행정 문서, 조선총독부 수집 자료 등 실로 다양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근현대 한국이 헤쳐 온 역사의 소용돌이를 떠올리면 이 책들이 지금까지 흩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온 것에 경외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진행된 藏書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전통시대의 기록문화, 장서문화의 원형을 해체시켜 버렸다. 그 결과 현재의 규장각도서는 장서의 역사적 맥락을 상실한 채 개별적으로만 파악되고 있으며, 그 역사적 문화적 의의도 희석되어 버렸다.

각 사회는 기록문화, 장서문화를 통해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후대에 전승한다. 오늘 날 우리의 지적 경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대의 기록문화와 장서문화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규장각도서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도서의 소장처별로 작성한 書目은 현재의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藏書印이 보다 확실한 단서가 되지만 장서인이 확인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²⁾ 이에 비해 서목은 소장도서의 목록으로 장서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册卷數만을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존 현황과 장서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당 서고의 장서를 복원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현전하는 규장각도서 관련 서목으로는 우선 원 규장각 소장 도서의 서목인 『奎章總目』, 『西庫藏書錄』,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과 『奎章閣書目』 등이 있다. 이외에 규장각도서로 편입된 홍문관, 시강원, 집옥재, 북한행궁, 오대산사

1)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작성한 「奎章閣圖書取扱內規」 1조에는 “舊奎章閣 소장 도서를 ‘규장각도서’로 칭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의 ‘구규장각’은 궁내부 규장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규장각도서’는 조선총독부에서 인계된 도서를 통칭하는 것으로 史庫에서 이관된 實錄, 郡縣에서 수집한 量案, 戶籍, 大藏經(고려판) 등도 포함하고 있다[『奎章閣圖書關係書類』, 『奎章閣圖書取扱內規』(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관 자료)].

2) 이행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규장각 도서에 찍힌 장서인은 약 200종, 內賜記·藏書記는 71종이다. 그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현 규장각 도서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杏淑, 1983 「奎章閣藏書의 構成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25면.

고, 태백산사고 등의 서목, 각각의 시기에 소장처별로 정리한 대축관, 승화루, 문현각, 봉모당, 융문루, 집경당, 집상전, 교서관, 학부편집국 등의 서목도 있다. 또 이를 종합한 『제실도서목록』,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 등 통감부시기 이후에 편찬한 도서목록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목의 추적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국가 도서관과 장서문화, 장서의 내용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서목의 대다수는 작성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또 대축관, 문현각, 승화루, 융문루, 집상전 등 별도로 존재한 서고는 그 성격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서목을 통해 장서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목의 작성 시기와 서고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연구의 출발점으로 『규장각서목』을 통하여 규장각 장서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규장각서목』은 고종·순종대에 작성한 규장각 장서의 총목록이다. 중국본을 소장한 閱古觀, 조선본을 소장한 西庫, 규장각의 집무소인 摘文院 소장 도서의 목록을 종합한 것으로, 규장각의 장서 목록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은 분명하다. 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작성된 3종의 서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장각 장서의 변동 사항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異見들이 공존하고 있다.³⁾ 그 중에는 작성의 선후관계를 다르게 파악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규장각서목』에 대한 이해도 작성 시기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규장각서목』은 앞서 백린, 신용하 등이 고찰한 바 있으며,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이문원서목은 각각 송일기, 남권희, 옥영정이 고찰한 바 있다.⁴⁾ 이 글에서는 앞의 연구들을 토대로 『규장각서목』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규장각서목』에 대

3) 규장각 소장 도서의 서목 작성 시기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남권희의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南權熙, 1983 「奎章閣 西庫와 그 書目分析」, 『奎章閣』 7.

4) 白麟, 1962 「奎章閣藏書에 대한 研究」,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慎鏞廬, 1981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 5; 宋日基, 1990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 『清浪鄭馳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南權熙, 위의 논문; 玉泳晟, 1996 「摘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2.

한 기초 조사로서 현존 현황과 작성 시기, 각 서목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3종의 『규장각서목』을 중심으로 장서의 移管과 변동 문제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장서의 흐름과 전통시대의 장서문화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규장각서목』의 현황과 작성 시기

1) 『규장각서목』의 현황

잘 알려진 것처럼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한 후 창덕궁 후원의 宙合樓을 중심으로 중국본 도서의 서고인 閥古觀·皆有窓, 조선본 도서의 서고인 西庫, 어제류를 봉안한 奉謨堂, 移安閣(書香閣) 등을 배치하였다.⁵⁾ 서적의 수집과 배치, 관리는 규장각의 사무처인 摘文院이 담당하였다.⁶⁾ 그리고, 열고관·개유와의 도서목록인 『奎章總目』과 서고의 도서목록인 『西庫藏書錄』,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을 연이어 완성하였다.⁷⁾ 이 서목을 통하여 정조대에 구비된 규장각 장서의 면모와 도서 관리를 위한 분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에도 서적의 가감에 따라 규장각 장서의 정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차 서목을 작성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규장총목』의 경우에는 순조 5년(1805) 경에 증보되었는데, 현존하는 『규장총목』은 이때의 증보본

5)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25일(계사).

6) 육영정, 앞의 논문.

7) 정조 5년 『규장총목』의 완성을 알리는 실록 기사에는 『열고관서목』 6권과 『西序書目』 2권을 아울러 『奎章總目』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홍재전서』의 「羣書標記」에는 정조 5년에 완성한 열고관 소장 도서 목록 4권을 『규장총목』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두 기록은 상충된다. 현존하는 『규장총목』 4권 3책도 중국본 도서의 목록이다. 정조대 西庫의 서목은 『서고장서록』, 『서서서목첩록』, 『서서서목초본』이 현존하나 『정조실록』에서 언급한 「서서서목」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남권희는 당초 「서서서목」이 완성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정조 5년 『서서서목』의 편찬 문제에 대해서는 남권희, 1983 앞의 논문, 138-140면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6월 29일(경자): 『홍재전서』 권183, 「군서표기」 규장총목].

으로 추정된다.⁸⁾ 이외에 새로 작성된 서목은 고종대 이후에 작성된 『규장각서목』이 확인될 뿐이다.

『규장각서목』은 열고관, 서고외에 이문원의 장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문원은 규장각의 집무처로서 서적의 출판, 수집, 출납 기능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정조대부터 이미 이곳에 御製를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서적의 頒賜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문원의 장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⁹⁾ 그러나 현전하는 이문원 서목은 모두 고종대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¹⁰⁾

현전하는 『규장각서목』은 여러 異種이 확인된다. 먼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분류체계가 다른 두 종류의 『규장각서목』이 있다.

이중 도서번호 奎11670의 『규장각서목』 ① 3책은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이문원서목」을 각각 한 책으로 작성한 서목이다. 4부분류를 한 『규장총목』이나 『서서서목초본』과 달리 書架別로 목록을 작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도서번호 奎11706의 『규장각서목』 ②는 현재 3책 중 2책만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남아 있다. 앞의 책과 달리 樓上庫와 樓下庫의 서목으로 되어 있으며, 서고 내에서는 書架를 기준으로 서적이 배열되어 있다.

이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규장각서목』 ③(K2-4636)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前弘文館移來件'을 수록한 것으로 「樓下別五架 前弘文館移來件」, 「不秩類 前弘文館移來件」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용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장각서목』 ②(奎11706)의 뒷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규장각서목』 ②와 ③의 종합을 통하여 당초 3책으로 작성된 『규장각서목』 ②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¹¹⁾

한편 장서각에 소장된 『奎章閣樓上庫冊目錄』(K2-4634)의 제1책과 제2책도 각각 완결된 형태의 규장각서목이다. 두 책의 표제는 모두 『奎章閣書目』(全)으로

8) 정호훈, 2012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成」, 『한국문화』 57, 94-100면.

9) 옥영정, 앞의 논문, 361-368면.

10) 「이문원서목」 외에 이문원에 봉안된 어제류를 따로 정리한 『摛文院奉安總錄』(奎11710) 도 별도로 전한다.

11) 南權熙, 1983 앞의 논문, 161면.

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장각서목』 ②와 장서각 소장 『규장각서목』 ③(K2-4636)을 합친 것으로 누상고, 누하고, 전홍문관건의 전체 목록이 실려 있다. 다만 제1책은 完帙本만을 수록하였고 제2책은 不帙類를 뒤에 따로 묶었다는 차이가 있다. 두 책은 모두 宮內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이외에 장서각에는 표제가 없는 『열고관서목』(K2-4654), 『서고서목』(K2-4963), 『이문원서목』(K2-4657)이 각각 남아 있다. 이 중 『이문원서목』(K2-4657)은 두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2책은 『규장각서목』 ①(奎11670)의 「이문원서목」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를 제외한 제1책과 앞의 『열고관서목』(K2-4654), 『서고서목』(K2-4963)을 묶으면 서고별로 정리한 『규장각서목』이 된다.¹²⁾ 세 책은 모두 4부분류를 따랐다.

이상과 같은 현황을 정리해 보면 현전하는 『규장각서목』은 세 종류로 파악된다.¹³⁾ 하나는 열고관·서고·이문원 서목을 각각 작성하되 4부분류를 따른 것이다. 또 하나는 열고관·서고·이문원 서목을 각각 작성하되 書架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누상고·누하고·前弘文館件 3책으로 구성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을 『규장각서목』 a, b, c로 지칭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2) 南權熙, 1983 앞의 논문, 158면.

13) 국사편찬위원회에는 『규장각서목』 2책(도서번호 KO B17B 19 v.1-2),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규장각서목』 5책(도서번호 古0260-7)이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2책은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필사한 것을 1925년 6월 6일 조선사편수회에서 인수한 것이다. 1책은 『이문원서목』, 2책은 『서고장서록』으로 현 규장각 소장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1948년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필사한 것으로 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인 『규장각서목』 2종 5책을 필사한 것이다.

〈표 1〉 『규장각서목』의 현존 현황

구분	현존 도서
『규장각서목』 a	『閑古觀書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654) 『西庫書目』(, K2-4963) 『摛文院書目』(, K2-4657) 제1책
『규장각서목』 b	『奎章閣書目』 ①(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1670) 3책 『摛文院書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657) 제2책
『규장각서목』 c	『奎章閣書目』 ②(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1706) 2책(원3책, 낙질) 『奎章閣書目』 ③(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636) 1책(원3책, 낙질)
	『奎章閣樓上庫冊目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634) 제1책 * 不秩類 누락
	『奎章閣樓上庫冊目錄』(, K2-4634) 제2책 * 不秩類 別集

2) 『규장각서목』의 작성시기와 구성 상의 특징

(1) 『규장각서목』 a : 장서각 소장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이문원서목』 제1책
 장서각에 소장된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이문원서목』 제1책은 모두 표제
 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의 제목은 卷首題를 따른 것이다. 책의 형태를 보
 면 모두 동일한 용지에 작성하였고, 판식은 물론 서명의 첫 글자를 이용하여 면
 수를 기록하는 등 통일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모두 서두에 목록을 수록하고,
 각 서적의 편저자를 밝히고 있는 점, 다른 서목과 달리 총책수를 기록하지 않았
 다는 점도 공통된다. 세 책이 통일된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 책을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는 테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¹⁴⁾ 그리고, 『열고관서목』의 뒷부분
 에는 「皆有窯北房書目」, 「文獻閣書目目錄」, 「演慶堂書目」이 부록되어 있다.

세 책의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異見이 존재하다. 『서고서목』을 분석한 남
 권희는 각 類門의 마지막에 실린 책 중 간행 시기가 가장 늦은 『小華外史』가 고
 종 5년(1868)에 재간되었고, 이후에 작성된 『규장각서목』 b 내의 「서고서목」에

14) 세 서목의 필체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마 『이문원서목』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으나
 『열고관서목』과 『서고서목』은 중간에 필체가 달라진다.

는 고종 5년 7월에 간행된 『三班禮式』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서고서목』의 작성시기를 고종 5년(1868) 7월 전후로 보았다.¹⁵⁾ 한편 『열고관서목』을 분석한 송일기도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작성 시기를 고종 5~6년간으로 파악하였다.¹⁶⁾

『이문원서목』 제1책과 『규장각서목』 b의 「이문원서목」을 비교 분석한 육영정은 『이문원서목』에 今上의 御製·御筆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고, 후자에는 御定諸書類에 잘못 기재된 정조~철종의 御製集과 實錄附錄이 전자에는 璞牒璿譜御製實錄 항목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문원서목』이 1890년대에 작성된 『규장각서목』 b보다 뒷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¹⁷⁾ 그런데 두 책의 수록 도서를 비교해 보면 『규장각서목』 b에는 『이문원서목』에 비해 뒷시기에 간행된 책이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어 常板 別集類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동일한 순서로 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문원서목』은 『對山集』(1868년 간행)으로 끝나지만 『규장각서목』 b에는 그 뒤로 고종 15년(1878)에 간행된 『六先生遺稿』 등 26종이 더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책이 『규장각서목』 b에서만 낙질로 기재된 책들이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면 『이문원서목』에는 완질로 된 『篠叢遺稿』, 『樊巖集』, 『耳溪集』, 『戎懼菴集』은 『규장각서목』 b에서는 각각 ‘破傷’, ‘五卷佚’, ‘不帙’, ‘三卷佚’이라고 세주가 달려 있다. 중간에 책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문원서목』은 『규장각서목』 b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연갑수는 세 서목이 한꺼번에 작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문원서목』에 수록된 고종의 어필 「關王廟楹聯帖」이 고종 11년(1874) 8월·9월 고종의 관왕묘 방문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점, 서고의 명칭이 모두 창덕궁의 殿閣名이라는 점, 『內閣藏書彙編』에 보이는 개화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고종이 관왕묘를 방문한 고종 11년(1874) 8월에서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還御한 고종 12년(1875) 5월 사이에 이 서목을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¹⁸⁾

15) 남권희, 1983 앞의 논문, 159면.

16) 송일기, 앞의 논문, 440면.

17) 육영정, 앞의 논문, 370면.

각 서목에 수록된 서적의 간행연도는 서목의 작성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각 서목은 대체로 내용이나 간행 연대순으로 도서명을 기입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세 책의 작성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서고서목』에서는 남권희가 지적한 것처럼 고종 5년(1868)에 재간된 『小華外史』가 가장 늦게 간행된 책이다. 하지만 『이문원서목』에는 御定諸書의 『銀臺條例』(1870), 常板 史部의 『三班禮式』(1868), 子部에 수록된 爰彥鑄의 『五服名義』(1876), 集部의 『陽川世稿』(1869), 林宗七의 『屯塢集』(1872) 등 그 후에 간행된 서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가장 간행 시기가 늦은 것은 고종 13년(1876) 4월 하순 이후에 간행된 爰彥鑄의 『五服名義』이다.¹⁹⁾

한편 『열고관서목』에는 內入 사실과 시기를 기록한 첨지가 붙어 있다. 內入할 때 첨지를 붙여 표시해 두고 반납이 되면 첨지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서적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첨지에 기록된 간지 중 가장 앞선 것은 부록된 「皆有窩北房書目」의 『古文眞寶』 7권과 「演慶堂書目」의 『詩傳諺解』 7권으로 내입 시기는 정축년(1877)이며, 가장 늦은 것은 「계유와북방서목」의 『杜律分韻』 5권으로 내입 시기는 기축년(1889)이다. 따라서 고종 14년(1877)부터 고종 26년(1889) 사이가 이 책의 작성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세 서목에 수록된 서적의 하한이나 내입 연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작성 시기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그러나 세 책이 함께 작성되었다고 보면 『이문원서목』에 수록된 『五服名義』의 간행연도인 고종 13년(1876) 4월 이후와 『열고관서목』에 수록된 가장 이른 내입 연도인 고종 14년(1877) 사이에 세 책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內閣藏書彙編』의 사례를 보면 책을 필사한 후에 이전의 내입 사실을 소급하여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각장서회편』은 열고관, 서고, 이문원의 서목에 수록된 서적을 합쳐 서명 첫

18) 延甲洙, 1994a 「高宗 初中期(1864~1894) 정치변동과奎章閣」, 『奎章閣』 17, 71면.

19) 『오복명의』 제3책의 마지막에 족손 爰初煥이 고종 13년(1876) 4월 하순에 쓴 발문이 있다.

글자의 終聲을 활용하여 발음별로 재분류한 책이다. 현재 상하 두 책으로 된 완질이 프랑스 동양어학교에 소장되어 있고, 국내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하권이 소장되어 있다.²⁰⁾

『내각장서회편』 하권에는 발음순으로 정리한 1,435종 27,109권의 목록이 있고, 뒤에는 이른바 개화서적이 포함된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이 부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도서를 『규장각서목』 a의 수록 도서와 비교해보면 발음순으로 정리된 책 가운데 「열고관서적」에 부록된 연경당, 문현각, 개유와북방의 서적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규장각서목』 a를 작성한 후에 이를 토대로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²¹⁾ 하지만 여기에는 『규장각서목』 b에 부록된 「隆文隆武移來冊子」에 수록된 책도 포함되어 있고,²²⁾ 고종 19년(1882) 이후에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개화서적의 목록도 있어서 편찬 시기는 고종 19년(1882)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런데, 이 책에도 정축년(1877)부터 무자년(1888)까지의 내입 사실을 기록한 첨지가 붙어 있고, 『열고관서목』의 내입 기록과 중복되는 부분도 확인된다.²³⁾ 이 책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서목의 필사 시기 를 고종 19년(1882) 이후로 본다면 내입 기록은 소급하여 초기한 것이 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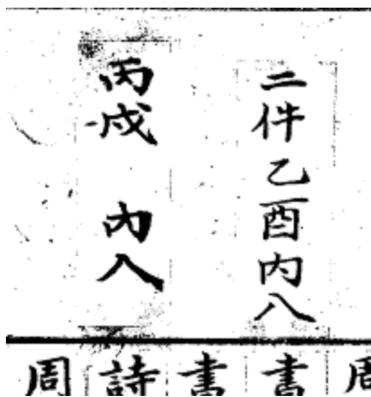
20) 『내각장서회편』의 특징에 대해서는 延甲洙, 1994b 「『內閣藏書彙編』解題」『奎章閣』 16 참조.

21) 예를 들어 賀谷集은 『규장각서목』 a의 「서고서목」에 17권, 「열고관서목」의 문현각 도서에 18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내각장서회편』에는 17권과 18권 두 책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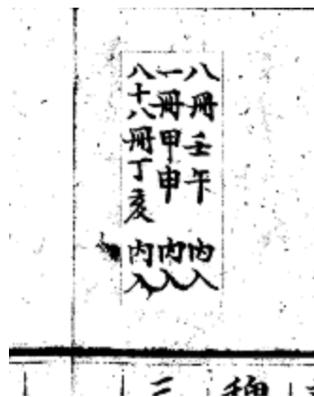
22) 『내각장서회편』에 수록된 『江華忠烈祠記帖』이나 『甲寅謁聖榜』, 『江界還接新入民戶實數』 등은 『규장각서목』 b의 「隆文隆武移來冊子」에만 보이는 서적들이다.

23) 『내각장서회편』의 내입 서적 중에는 『서고서목』이나 『이문원서목』에 소장되었던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두 서목에는 내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24) 연갑수는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은 뒤에 초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전체의 필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필사 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프랑스동양어학교에도 이 책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서각 소장본이 후사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연갑수, 1994b 앞의 논문 참조.



<그림 1> 내입 기록 ①



<그림 2> 내입 기록 ②

『열고관서목』의 내입기록은 필체가 유사해 보이지만 <그림 1>처럼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일시에 소급하여 기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 한 장의 첨지에 여러 해의 내입 사실을 함께 기록한 경우도 있어서 일정시점에서 정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입 사실을 소급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면 가장 늦은 내입 시기인 고종 26년(1889)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서목의 분류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조선본 도서의 목록인 『서고서 목』은 정조대에 편찬한 『西序書目草本』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다. 먼저 御製·御筆, 璞牒·璿譜, 御定諸書의 항목을 두고 뒤이어 經史子集 4부의 구분 하에 33類門을 두었다.

이에 비해 『열고관서목』은 어제·어필, 선첩·선보, 어정제서의 항목은 없고, 경사자집의 4부 분류 하에 37유문을 두었다. 정조대의 4부 34류로 된 『규장총목』에 비하여 3개의 유문이 늘어난 것은 『규장총목』의 刑法類를 제외한 대신 『서서서목초본』에서 새로 설정된 孝經類, 雜史類, 傳記類, 史評類의 4개 항목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서서목초본』에 비해 4개 항목이 더 많은 것은 『서서서목초본』의 譯語類를 제외한 대신 『규장총목』에 설정된 樂類, 別史類, 總目類, 叢書類 등 4개 항목을 취하고, 道釋類도 『규장총목』과 마찬가지로 道家類와 釋家類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고관서목』의 분류는 정조대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의 체계를 종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열고관서목』은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의 類門名이 다른 경우는 『서서서목초본』을 따랐다. 예를 들어 『규장총목』의 卜筮類는 『서서서목초본』에는 術數類로 되어 있는데, 『열고관서목』에도 술수류로 되어 있다.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의 藝琬類, 類事類는 『열고관서목』과 『서고서목』에 모두 書畫類, 類聚類로 명칭이 바뀌어 있다. 즉, 『열고관서목』의 분류체계는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을 종합하면서 『서고서목』과 통일을 기한 것이다.

『열고관서목』과 『서고서목』의 서적 수록 순서도 각각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두 서목은 정조대의 서목에 기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는 類門이 변경된 경우도 있어서 재차 도서의 정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새로운 추가된 서적을 목록의 중간에 기입한 경우도 있고, 뒤편에 일괄하여 추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 차례 이상 서적의 정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본과 조선본 서적을 함께 수록한 『이문원서목』의 경우 『서서서목초본』에서 도입된 어제·어필, 선첩·선보, 어정제서의 분류를 살리고 중국본과 조선본을 唐板과 常板으로 구분하여 각기 경사자집의 분류만을 두었다.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의 분류체계를 종합하되 간략화한 형태이다.

장서각 소장의 『규장각서목』 a는 분류체계나 서적의 수록 순서, 저자를 기재한 도서 정보의 기록 방식 등에서 모두 정조대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을 계승하고 있다. 『규장각서목』 a는 정조대의 규장각 장서 관리 방식을 계승한 시기의 서목이다.

(2) 『규장각서목』 b : 규장각 소장 『奎章閣書目』 ①(奎 11670), 장서각 소장 『이문원서목』 제2책

규장각에 소장된 『규장각서목』 ①(奎 11670-v.1-3)은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이문원서목」을 각각 한 책으로 묶은 책이다. 표제는 모두 『규장각서목』이며, 표지에 각각의 수록 내용과 전질이 3책임을 밝히고 있다. 세 책의 판식도 동일하다.

이 서목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신용하는 「열고관서목」에 이른바 ‘開化書籍’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1907년 이후로 추정하였으며, 남권희는 도서 중 고종 13년(1878)에 간행된 『宋書百選』이 간행 시기가 가장 늦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고종 13년(1876) 이후로 파악한 바 있다.²⁵⁾ 그러나 이행숙은 「이문원 서목」 가운데 명성황후의 哀冊文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명성’이라는 시호가 내린 광무 1년(1897) 이후로 파악하였다.²⁶⁾

이 서목은 앞의 『규장각서목』 a와 달리 부류의 구분 없이 서가별로 서적 목록을 작성하였다. 서명과 책권수 외 다른 정보는 거의 없으며, 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수록된 서적의 간행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이문원서목」의 御製御筆 부분을 보면 명성황후의 哀冊文·謚冊文 다음에 『莊宗大王追崇玉冊』, 『獻敬王后追崇玉冊文帖』, 『正宗大王追上尊號玉冊文帖』, 『孝懿王后追上尊號玉冊文帖』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서적들은 광무 3년(1899) 9월 1일(양력)에 莊獻世子를 莊宗으로 추증한 것과 관련된 册文들이다.²⁷⁾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嘆嬪謚冊文草帖』은 같은 달 14일 莊獻世子의 모친인 영빈이씨에게 ‘昭裕’라는 시호를 내린 책문이다.²⁸⁾ 따라서 이 서목의 작성시기는 광무 3년(1899) 9월 14일 이후가 된다. 그리고 고종이 지은 善竹橋碑文을 ‘今上’의 御製·御筆로 기록하여 고종이 퇴위하기 이전에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서목에는 세 책 모두 內入 사실을 기록한 첨지가 있는데, 내입 시기는 병신년(1896) 7월부터 임인년(1902) 5월까지다. 내입 시기가 이 서목이 작성된 시기보다 앞선 셈이다. 따라서 서목을 작성한 후에 내입이 있을 때마다 첨지를 붙인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시점에 이전에 내입된 사실을 소급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내입 시기가 가장 늦은 임인년(1902) 5월 이후에 이 서목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이 서목은 건양 원년(1896)에서 광무 6년(1902)의 시기와 관련된 서목으로 대한제국 시기의 상

25) 慎鑄廬, 앞의 논문, 70면; 남권희, 1983 앞의 논문, 160면.

26) 이행숙, 앞의 논문, 53면.

27) 『고종실록』 권36, 고종 36년(1899) 9월 1일(양력).

28) 『고종실록』 권36, 고종 36년(1899) 9월 14일(양력).

황을 보여준다.

『규장각서목』 b 역시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열고관서목, 서고서목, 이문원서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열고관서목」에는 『내각장서휘편』에 부록되었던 「新內下書目」과 「춘안당서목」을 종합한 「신내하서목」과 경복궁 응문루와 응무루의 서목인 「隆文隆武移來冊子」가 부록되어 있다.

각 서목의 도서 배열 방식은 『규장각서목』 a와 서로 다르다. 우선 열고관 도서는 經藏 2개, 史藏 4개, 『圖書集成』 7개 藏과 子部·集部 도서를 통합하여 보관한 17개의 書架로 나뉘어져 있다.²⁹⁾ 크게 보면 經部, 史部, 『圖書集成』, 子集部로 나누고 서적이 위치한 서가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다. 각 도서의 위치를 보면 類門으로 나뉘어져 있던 도서가 한 藏 속에 뒤섞여 있다.

「서고서목」은 西北 1~2架, 西西 1~4架, 기타 1~40架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서북과 서서의 서가는 御製類이고, 기타 40개는 經史子集의 서적이 뒤섞여 있다. 이전의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도서들이 서가에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반면 이문원서목은 『규장각서목』 a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일한 분류를 따랐다. 서적은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으나 각 부별 수록 순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각부의 뒤쪽에 새로 추가된 도서들은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 常板 集部에 있어야 할 『樊巖集』이 史部에 있고, 원래 어정제서에 있던 『규장각지(草本)』는 常板 子部에 있다. 뒤쪽에 수록된 책 중에는 새로 추가된 책들도 있고, 원래 목록에 있던 책을 일시 반출했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황은 기존의 『이문원서목』에 기초하여 도서가 배열되어 있었으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장각서목』 b의 도서는 열고관, 서고, 이문원의 구분은 있으나 4부 분류에 의한 체계가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규장각 도서를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은 시사한다. 그러나 이 이전 시기에도 규장각 장서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흔히 경복궁을 중건하고 규장각이 경복궁 내 종친부로 옮겨졌고,

29) 이 중 제11가에서 제17가에 『규장각서목』 a에 부록된 「개유와북방서목」, 「문현각서목」, 「연경당서목」에 수록된 책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규장각 장서도 경복궁으로 옮겨 진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갑수는 이 같은 이해가 자료에 대한 誤讀과 답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판하고, 고종 5년 경복궁으로 이어할 때 규장각 장서를 경복궁으로 이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³⁰⁾

고종대 규장각 도서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고종 8년(1871) 가을에 집필된 것으로 알려진 李裕元의 「春明逸史」 중 「이문원서목」에는 聚奎樓의 樓上과 樓下, 宙合樓, 隆文樓, 隆武樓, 東二樓에 서적이 보관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³¹⁾ 서책의 분류를 보면 취규루상고가 열고관, 취규루하고가 서고, 동이루가 이문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 서고의 도서 종수는 장서각 소장 『규장각서목』 a에 수록된 서적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열고관과 서고의 장서는 취규루로 옮겨 진 듯하다.

취규루는 경희궁 내 규장각에 소재한 書庫로 알려져 있다.³²⁾ 이를 따를다면 규장각 장서가 경희궁에 소장된 셈이 된다. 그런데, 고종 13년(1876) 11월 경복궁 교태전의 화재로 많은 서적이 소실된 후 안타까워하는 고종에게 이유원은 “내각의 서적을 皆有窩에 두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³³⁾ 이에 따르면 규장각 도서는 여전히 창덕궁에 남아 있었던 것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상황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고종 27년(1890) 進饌儀軌를 간인한 후에 3건을 西庫에 봉안한 것을 보면³⁴⁾ 적어도 고종 27년까지는 창덕궁의 西庫가 조선본 도서의 장서처로 기능하였던 듯하다.

창덕궁과 취규루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순조대 함홍과 영홍 본궁의 제사에 사용할 香을 封裹할 때 남은 향을 보관하는 곳으로 창덕궁의 동이루와 함께 취규루가 등장한다.³⁵⁾ 순조 34년 9월의 封香 기록을 보면 10

30) 연갑수, 1994a 앞의 논문, 69면.

31) 李裕元, 『林下筆記』 권30, 「春明逸史」 摘文院書目.

32) 『增補文獻備考』 권38, 輿地考26 慶熙宮.

33) 『일성록』 고종 13년 11월 4일 “予曰 列聖朝御筆 一無救得 內藏書冊 亦無餘存者矣 書冊 則未知內閣各有一副矣 裕元曰 內閣書籍之藏於皆有窩 聖意所在矣.”

34) 『일성록』 고종 27년(1890) 3월 16일(을유).

일에 각신인 대교 金學性 등이 창덕궁 내각에서 清齋하고 11일에 향을 쓴 후 남은 향을 취규루에 봉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취규루는 창덕궁 내 규장각과 관련된 건물이다.

정조가 지은 「慶熙宮志」에는 경희궁의 동궁인 尊賢閣에 부속된 서고로 宙合樓와 東二樓가 등장한다.³⁶⁾ 하지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주합루는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 건물이며, 동이루도 창덕궁 이문원 청사 내 大酉齋의 동쪽에 있던 서고를 가리킨다. 정조는 동궁 시절 경희궁에서 사용하던 건물 명칭을 창덕궁의 누각명으로 옮겨온 것이다. 취규루 역시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겨 온 명칭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유원이 언급한 취규루는 창덕궁 내에 위치한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규장각서목』 b에 수록된 서고의 서가 배치를 보면 西北과 西西에 2개씩의 서가가 있고, 그 뒤에는 방향이 기재되지 않은 40개의 서가가 배치되어 있다. 창덕궁의 서고는 좌우에 협설이 각 2칸씩이 있고, 16칸의 건물이 길게 늘어선 형태이다. 이와 서고의 배치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³⁷⁾ 『규장각서목』 b 가 열고관, 서고, 이문원으로 나누어 작성된 것으로 보면 이즈음까지도 규장각서는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적의 순서가 뒤엉킨 것을 보면 장서의 재분류를 시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규장각서목』 c : 규장각 소장 『규장각서목』 ② 및 장서각 소장 『규장각서목』 ③, 장서각 소장 『奎章閣樓上庫冊目錄』

『규장각서목』 c는 역시 3권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 서목들과 달리 樓上庫, 樓

35) 『咸興永興兩本宮春秋封裏贍錄』 1책 (갑오 9월) “同月初十日 待敎金學性禮房承旨李正耆 清齋于昌德宮內閣[書吏朴完基金義齡李仁桓池敬基清齋]香官及守僕清齋于昌德宮內閣小木匠清齋于內司 同月十一日 用餘香 仍爲奉安于聚奎樓”

36) 『홍재전서』 春邸錄 雜著 「慶熙宮志」 “又其東曰尊賢閣 列朝在銅闈時 講讀之閣而後廢焉 今上庚辰移御 命余讀書于閣 閣上有樓 曰宙合也 觀文也 傍有二室 曰東二樓也 虹月樓也 又其傍有堂 曰貞隣 舊名惜陰 此皆余藏書之所也。”

37) 서고의 배치도형은 남권희, 1983 앞의 논문, 133면에 소개되어 있다.

下庫, 前弘文館件으로 나뉘어 있다. 세 책의 표지에 서명을 쓴 필체나 사용한 용지도 동일하며, 각 책의 書耳에는 모두 ‘共三’이라고 하여 원래 세 책이 한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목의 작성 시기에 대해 신용하는 고종 5년 무렵으로 추정하였다. 당시의 서고가 2층 1동과 단층 1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수록된 2층의 취규루와 동이루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인 듯하다.³⁸⁾ 이에 대해 남권희는 세 책이 본래 한질이었음을 밝히고, 「규장각누하고책 목록」에 기재된 『日記草冊』과 『萬歲曆』의 기록이 1907년까지만 나타나고 『규장각서목』 ③에 융희 원년 홍문관 폐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책의 작성 시기를 융희 원년 경으로 파악하였다.³⁹⁾

홍문관이 폐지된 것은 융희 원년(1907)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누상고책목록」에는 고종을 ‘太皇帝’로 칭하고 있다. 이 서목의 작성 시기는 고종이 폐위되고 홍문관이 폐지된 융희 원년 11월 27일 이후라는 점은 확실하다.⁴⁰⁾

이에 대해 서영희는 융희 2년(1908) 9월에 설치된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에서 『제설도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서목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통감부는 융희 2년(1908) 9월 23일 「奎章閣分課規定」을 제정하여 궁내부 규장각에 典謨課, 圖書課, 記錄課, 文事課를 설치하고 도서과에서 도서의 정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때 폐지된 홍문관 장서 외에 집옥재, 시강원, 북한산사고의 도서도 규장각 도서과로 이관되었다. 서영희는 현전하는 『집옥재조사기』(융희 원년 12월, 조사원 前副卿 李鍾泰), 『집옥재서적목록』, 『집옥재목록외서책』, 『北漢冊目錄』(융희 3년 4월), 『春坊藏書總目』(광무 9년 을사 정월 초3일 啓下, 1907년 7월 이후 재조사) 등이 모두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⁴¹⁾ 실제 『규장각서목』 C와 『집옥재서적목록』은 작성 용지가 동일하여 두 서목이 유사한 시기에

38) 신용하, 앞의 논문, 67면.

39) 남권희, 1983 앞의 논문, 162면.

40) 누상고책목록의 일성록 부분에 ‘太皇帝 일성록 498권내 25권 欠’라고 하여 고종을 ‘太皇帝’로 칭하고 있다.

41) 徐榮姬, 1994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奎章閣』 17, 108-109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 ‘제실도서’로 통합하는 기획이 시작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서목이 『제실도서목록』의 편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규장각서목』 c는 이전의 열고관, 서고, 이문원 장서 체계를 해체한 채 서가별로 책을 정리하였다. 세 곳의 장서는 누상고, 누하고에 위치하는데 누상고에는 北架 11개와 南架 10개, 누하고에는 북가 10개, 남가 14개, 別架 4개가 있다. 이 외에 别架 5에는 홍문관에서 아래한 서적이 있다. 서가의 배치를 보면 누상고와 누하고가 있는 2층의 건물로 장서 전체가 옮겨 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곳이 어느 건물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 서목을 이전의 『규장각서목』 b와 비교해보면 누상고는 열고관, 누하고는 서고 장서가 중심을 이루며, 이문원 장서는 양쪽에 흩어져 있는데, 御製·璿牒類는 원소장처와 관계없이 누하고의 북1가~북7가에 모여 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상고와 누하고, 즉 중국본과 조선본을 나누어 각기 4부 분류를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⁴²⁾ 즉, 이 서목은 규장각 장서를 원소장처와 상관없이 御製·璿牒類, 중국본, 조선본으로 나누고 4부 분류를 시도하는 중간 단계에 작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서고마다 마지막에 총책수를 기록하고, 不帙類를 따로 모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책수의 파악과 完帙과 落帙의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각 소장 『규장각누상고책목록』 두 책은 낙질본을 제외한 완질본만을 수록하고, 제2책의 뒤쪽에 ‘奎章閣書籍不帙類’라는 제목 하에 낙질본의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였다.

『규장각서목』 c가 작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융희 3년(1909)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는 奎章閣(弘文館 포함), 春坊, 集玉齋, 北漢山行宮에 소장된 도서를 종합하고 4고전서의 분류법을 따라 전체 도서를 재분류하여 『帝室圖書目錄』(융희 3년 11월 인간)을 간행하였다. 이로써 이전의 서목에서 중요한 분류를 구성하던 御製·御筆, 璞牒·璿譜, 御定書의 구분이 사라졌다.

그 후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규장각도서는 史庫 등에서 이관된 도서와 함께 다

42) 누하고의 서적 배치에 대해서는 남권희, 1983 앞의 논문, 163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시 한 번 재분류되었다. 그 결과 1921년 10월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이 간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조선본과 중국본을 나누었으나 분류는 4부와 43류문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1934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는 당시의 ‘규장각도서’ 중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에서 누락된 서적을 모아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를 간행하였다.

통감부시기와 총독부시기 두 차례에 걸친 장서의 통합과 재분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장서의 체계는 해체되었다. 다만 조선총독부에서 도서를 재분류하는 가운데 각 도서의 장서인을 파악해 둔 것이 주목된다. 이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전통시대 장서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⁴³⁾

3. 규장각 장서의 변동

1) 도서의 유입

규장각을 설립한 정조는 자신이 세손시절 貞嘆堂에 소장한 도서와 『도서집성』 등 등극 후 새로 확보한 도서를 토대로 舊홍문관 소장본과 강화도 行宮 소장 도서 등을 더하여 규장각 도서를 갖추었다. 그리고, 書庫를 건립하여 중국본은 皆有窩·閱古觀에, 조선본은 西庫에 보관하였다.⁴⁴⁾ 규장각 도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정조대 설치된 규장각 장서는 그 이후 얼마나 보존되었으며, 또 새로운 장서는 얼마나 확보되었을까?

장서의 대규모 변동은 한꺼번에 다른 서고의 책을 옮겨 오거나 다른 서고로 책을 옮겨 갈 때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외에 개별적인 책의 출입도 빈번하였다.

서목 상에서 새로운 도서의 이관이 눈에 띄게 등장하는 것은 열고관의 장서다. 『규장각서목』 a의 『열고관서목』에는 원 서목 외에 「皆有窩北房書目」, 「文獻

43) 『(朝板)書籍目錄臺帳』(규26768)과 『支那本圖書整理簿』(규26726).

44)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25일(계사);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6월 29일(경자).

閣書目目錄』, 「演慶堂書目」이 부록되어 있고, 그 뒤에 만들어진 『내각장서회편』에는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이 부록되어 있다. 또 『규장각서목』 b에는 「新內下書目」, 「隆文隆武移來冊子」가 부기되어 있다. 마지막의 『규장각서목』 c에서 『일성록』, 『綸綺』, 『章劄彙編』 등 거칠의 서적이 유입되었다. 이에 비해 서고나 이문원에는 대규모의 서적 유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열고관을 중심으로 규장각 장서의 대규모 유입에 되어 살펴보고자 한다.

열고관은 주합루의 서남쪽에 위치한 2층의 누각으로 북쪽으로 皆有窓로 연결되어 있다. 건물의 남쪽이 열고관, 북쪽이 개유와이다.⁴⁵⁾ 정조 5년 『규장총목』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에는 중국본 서적을 皆有窓에 보관했다고 하였으나⁴⁶⁾ 그 후 개유와와 열고관의 혼칭을 혼용하였는데, 『규장각서목』에서는 통일적으로 열고관으로 칭하였다.⁴⁷⁾

『규장각서목』 a에 부록된 「개유와북방서목」은 개유와의 북쪽 방에 보관된 책으로 모두 90종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책은 모두 정조대에 편찬되거나 간행된 책으로 『군서표기』와 상당부분 겹치며, 다른 서고에도 비치된 책이다. 예를 들어 『홍문관지』는 71건이나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서적도 10건 이상씩 소장된 경우가 많다. 당시의 개유와 북방은 조정에서 간행한 서적의 보관처로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문현각서목목록」은 숙종 26년(1700) 경희궁 내에 세운 서고인 文獻閣의 서목이다. 규장각이 설립된 후 문현각도 규장각에서 관리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서고는 여전히 경희궁에 별도로 존재하였다.⁴⁸⁾ 고종 2년 7월 철종의 어제를 인간한 후 봉모당과 문현각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문현각은 적어도 고종 2년까지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일성록』과 『내각일력』에는 정

45)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9월 25일(계사).

46) 『정조실록』 권5, 정조 5년 2월 13일(병진).

47) 열고관과 개유와의 혼칭 사례에 대해서는 송일기, 앞의 논문, 436-438면 참조. 현재 『동궐도』에는 개유와와 열고관의 이름이 뒤바뀌어 있다. 『조선고적도보』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宮闕』에 사진이 실려 있다. 『동궐도형』(규구9980, 1908)에는 西庫는 있으나 열고관·개유와 건물을 빼고 있다.

48) 『일성록』 정조 11년 7월 24일.

조의 御製集, 사도세자 睿製, 순조와 현종, 철종의 어제를 이곳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서목은 어제, 선첩, 어정, 경부, 사부, 자부, 집부로 나누어 전체 101종의 서적을 수록하였다. 문헌각을 설립한 숙종 26년 이후에 간행된 책은 『尤庵集』(1717), 『論語正音』(1735), 『正宗大王御製集』(1814), 『凌虛關漫稿』(1814), 『斥邪論音』(1839)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숙종대에 수합된 도서를 그대로 보존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책으로는 『受敎輯錄』 2권 2건, 『龍飛御天歌』 10권, 『大明集禮』 40권, 『文選』 60권, 『尤庵集』 60권 등이 있다.

문헌각은 당초 궐내 廂庫에 소장된 서책을 정리한 것으로 ‘廂庫’라는 인장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⁵⁰⁾ 현재 규장각 소장 도서 중 ‘상고’라는 인장이 찍힌 책은 書名을 기준으로 48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중 34종이 「문헌각서 목」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헌각서 목」에 실려 있지 않은 책 14종 중 8종에는 ‘弘齋’, ‘震宮’, ‘震章’, ‘承華章’, ‘承華藏圭’ 등 정조가 세손시절에 사용하던 장서인이 찍혀 있다. 정조가 경희궁 동궁에 있던 시절 이 책들을 옮겨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農家集成』, 『類苑叢寶』, 『伸冤牛栗兩先生疏』, 『馬經諺解』 등이 포함되어 있다.

演慶堂은 순조 27년(1827) 孝明世子가 대리청정을 시작할 때 지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현종대에는 이곳에 봉안된 翼宗의 어진을 景祐宮 誠一軒으로 移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¹⁾ 연경당 서목에는 모두 6개의 書架에 53종의 서적이 있는데, 1가에 소장된 四書三經의 大全과 諺解를 제외한 나머지 책은 거의 대부분 정조대에 간행된 책들로, 「개유와 북방서 목」에 수록된 것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서적별 건수도 상당히 많아서 『충무공전서』 33건, 『濟衆新編』 58건, 『正音通釋』 123건 등 수십 건씩 소장된 경우도 있다. 연경당도 개유와 북방과 마찬가지로 조정에서 간행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으로 보인다.

49) 『내각일력』 고종 2년 7월 5일.

50) 南權熙, 1984 「文獻閣과 文獻閣書目의 分析: 肅宗朝의 文化的背景을 통한 韓國本書庫의 研究」 『圖書館學』 11.

51) 『내각일력』 현종 3년 4월 14일: 『내각일력』 현종 3년 4월 17일.

이상 『규장각서목』 a에 부록된 「개유와북방서목」, 「문현각서목목록」, 「연경당서목」의 서적은 다음에 편찬된 『규장각서목』 b에서는 열고관의 제11架에서 제17架까지 7개의 서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열고관 서목의 일부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열고관에도 다수의 조선본 서적이 소장되게 되었다.

『규장각서목』 b에 수록된 「용문용무이래책자」는 고종대 경복궁의 서고인 隆文樓와 隆武樓에서 옮겨온 책이다. 이 서목에는 중국본과 조선본은 물론 경사자집의 4부를 아우르는 다양한 종류의 서적 429종, 2,806책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이 책을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규장각에는 별도의 『隆文樓書目』(규11709)이 소장되어 있는데, 8개의 書架에 대략 御製·璿牒, 御定書, 經部, 史部, 子部, 集部, 佛經類, 四書三經의 대전과 언해본의 분류 아래 다양한 책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전의 규장각 서목에 보이지 않는 책들도 다수 발견되는데, 그 중 정조가 편찬한 『詩觀』 297권,⁵²⁾ 禹夏永의 『千日錄』, 4架에 수록된 「江界還接新入民戶實數」, 『八道賑穀假令』(各道乙亥以後賑恤時穀物數爻, 1815), 『戶口總數』(1789), 『杆城遺民還接成冊』(『江原道杆城郡流民還接及他官民新接數爻區別成冊』, 1797) 등 국가의 정책 운영과 관련된 도서들이 주목된다. 이러한 도서들은 규장각 도서와는 별도로 전승되어 오다가 용문루 도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詩觀』, 『戶口總數』는 원래 『大畜官書目』에 있던 책이다.⁵³⁾ 그리고, 『京外題錄』과 『科規』 등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內下庫書目』에 수록된 책이다. 용문루·용무루 소장 서적은 이외에 寶文閣, 承華樓 등 다른 왕실 서고의 소장 도서와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용문루와 용무루의 도서가 언제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용문루서목』의 일부 도서에 ‘丙戌(1886)內入’이라는 籤紙가 붙어 있는 것

52) 『군서표기』에는 정조 16년(1792)에 『시관』 560권을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3) 『대축관서목』은 규장각의 해제에는 영조후반~정조초반에 편찬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 중에 『호구총수』,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등 정조대 후반에 편찬된 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무자년의 내입 기록이 있는데, 서책의 분포를 보면 이 무자년은 순조 28년(1828)으로 보인다. 이 서목에는 소설을 비롯하여 한글로 된 도서와 『홍루몽』, 『금병매』 등 중국 소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규장각과 독립된 순수한 왕실 서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으로 미루어 이관 시기는 그 이후로 판단된다. 그리고 『용문루서목』과 비교해 보면 이관에서 누락된 책들도 있는데, 정조가 편찬한 『시관』은 『규장각서목』 b에서 보이지 않으며, 현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호구총수』는 「이문원서적」에 포함되어 있다. 「웅문용무이래책자」에 수록된 책은 『내각장서휘편』에도 포함되어 있다.

『규장각서목』 b의 「신내하서목」은 말 그대로 국왕이 새로 하사한 서적의 목록이다. 모두 371종, 4,918책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6개의 書架로 나뉘어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편찬한 서양관련 서적, 이를바 ‘개화서적’이다. 이 서목에 수록된 책 중에는 앞서 작성된 『내각장서휘편』의 「신내하서목」과 「춘안당서목」에 포함되어 있던 책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1880년대 후반 이후에 규장각에 하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장각서목』 a의 「이문원서목」에는 ‘別峙’라는 항목 하에 열고관에서 옮겨 온 도서 34종의 목록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도서 중 『규장총목』에서 동일한 도서명이 확인되는 경우는 『東江問答』과 『八線表』 두 종뿐이다. 따라서 열고관에도 『규장총목』에 수록되지 않은 도서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다.

2) 도서의 內入과 移轉

문현각, 개유화, 연경당, 용문루, 용무루, 내하 서적들이 규장각 장서로 편입된 반면 규장각 장서 중에서 외부로 반출된 책들도 있다. 『규장각서목』 a의 「열고관서목」, 『내각장서휘편』, 『규장각서목』 b에 기록된 내입과 이관 기록을 통해 그 일부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규장각서목』 a의 「열고관서목」에서 내입된 서적을 시기와 서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⁵⁴⁾

54) 『열고관서목』 중 열고관 소장 도서를 내입한 사례는 송일기, 앞의 논문, 454면에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皆有窯北房書目」, 「文獻閣書目」, 「演慶堂書目」 가운데 내입된 것은 누락되어 있다.

〈표 2〉『규장각서목』a 「열고관서목」의 內入 기록

* 단위: 종(종수는 서명을 기준으로 함)

연도	개유와	문현각	연경당	열고관	합계
1877	1		1		2
1881				1	1
1882			1	4	5
1883		1		4	5
1884	1	4	1	7	13
1885		1			1
1886		3		3	6
1887	3	2		1	6
1888				1	1
1889	2				2
합계	7	11	3	21	42

고종 14년(1877)부터 26년(1889)까지 열고관에서 내입한 서적은 모두 42종이다. 여기에는 『通鑑三編綱目發明』 106권, 『皇朝文獻通考』 160권, 『大清會典則例』 100권, 『三才圖會』 100권, 『大明集禮』 40권, 『史記評林』 40권 등 巨帙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현각과 연경당에서는 주로 經書와 그 언해본을 내입하였다.

한편 『내각장서휘편』 하권에서는 고종 14년(1877)부터 25년(1888)까지 96종을 내입한 기록이 있다. 이 중 11종은 「열고관서목」과 중복되며 나머지 85종은 「신내하서목」 16종, 「춘안당서목」 31종, 나머지 서고와 이문원 서적이 38종이다. 이 중에도 『佩文韻府』 115책, 『玉篇』 50책, 『淵鑑類函』 140책, 『동국통감』 26책 등 거질이 있으며, 『金瓶梅』, 『紅樓夢』, 『紅樓夢補』 등 소설류, 『陸軍服制圖』, 『陸軍將馬具圖例』와 같은 제도관련 서적 등 다양한 서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이 하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책이 내입되었을 것이다.

한편 『규장각서목』 b에는 건양 원년(1896)부터 광무 6년(1902)까지 50건의 내입 기록이 확인된다. 이 중에는 광무 1년(1897) 10월 『고금도서집성』 5,022책, 광무 3년(1899) 3월 『주자대전』 75권을 欽文閣으로 이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경운궁에 새로운 서고를 마련한 뒤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내입된 책 중에는 『與猶堂集』 15책이 눈에 띈다.

내입된 책들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종은 경복궁 내에 隆文樓, 隆武樓, 春安堂, 集玉齋, 緝敬堂 등의 서고를 갖고 있었고, 春坊도 대규모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다.⁵⁵⁾ 이외에도 왕실에는 御眞·御製 등 왕실관련 자료나 書畫 등을 수장한 장서고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⁵⁶⁾ 내입된 서적들은 이와 같은 궐내의 다른 서고로 이관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内下라는 명목으로 규장각에 다시 돌아온 책들도 있었다.

〈표 3〉 『내각장서휘편』의 內入 기록

연도	一類	應類	宜類	任類	新內下書目	春安堂書目	합계
1877		2					2
1878		1					1
1879		2	2				4
1880	2			1			3
1881		2	1				3
1882		1	2				3
1883		2			2		4
1884		4	3	1	4	26	38
1885		4	2		2	2	10
1886		8	3		3		14
1887			3		5		8
1888		1					1
1877/1881		1					1
1878/1880		1					1
1879/1877		1					1
1883/1884		1					1
1886/1887						1	1
합계	2	31	16	2	16	29	96

55) 집옥재 서적은 2,430종, 40,586책[『집옥재서적목록』(규11676)], 춘방 서적은 879종, 20,116책[『춘방장서목록』(규11671)]에 이르렀다. 또 『緝敬堂曝曬書目』에도 총 1,895질, 23,004책이 수록되어 있다.

56) 규장각 외에도 궐내에 다양한 도서 수장처가 있었다는 것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李鍾默, 2002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 黃正연, 2005 「朝鮮時代 宮中 書畫收藏處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32; 2008 「高宗 年間 (1863~1907) 宮中 書畫收藏의 전개와 变遷」 『美術史學史研究』 259; 풍지혜, 2013 「정조대 궁중 서적보관처와 서적 관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 4〉『규장각서목』 b의 内入 기록

연도	도서집성	열고관	서고	신내하서목	이문원	합계
1896		1	5	1	2	9
1897	1		3	1		5
1898			8	8		16
1899			3	2	1	6
1900			2	1		3
1901		1	1	1		3
1902				6	2	8
합계	1	2	22	20	5	50

예를 들어 『대축관서목』에 실린 책 중 『皇明統志』 40권, 『皇朝統志』 40권, 『皇朝文獻通考』 160권은 『규장총목』에는 없던 책으로 『규장각서목』 a 「열고관서목」의 史部 掌故類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데, 병술년(1886)에 내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뒤에 『집옥재서적목록』에서 확인된다. 국왕의 필요에 따라 다른 서고로 이전되었던 것이다.

한편 『규장각서목』 b에는 상단에 帶紙를 붙여 學部로 도서를 이전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대지가 내입 첨지의 위에 붙여진 것으로 보아 학부로 도서를 이전한 것은 광무 6년(1902)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필체로 책을 접검한 것으로 보아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일괄적으로 2건 이상이 있는 책 중에서 1건씩을 이전하였다. 이관된 책은 모두 405종인데, 그 중에서도 서고에서 이관된 도서 종수가 211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책들은 학부에서 편찬한 『學部編輯局書冊目錄』(奎 11554)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규장각서목』 b에 올라 있지 않는 책들도 많아 다른 곳에서도 책을 이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표 5〉 『규장각서목』 b의 學部 移管 도서

* 단위: 종수

서고	전체 종수	학부이관 종수
열고관	1,529	126
서고	1,351	211
이문원	670	68
합계	3,550	405

3) 장서 수의 변동

대규모 移管이나 내입이 이루어진 경우 외에도 각 서목에 기재된 도서를 비교해 보면 도서의 출입이 나타난다. 한 예로 『규장총목』과 『규장각서목』 a의 원 열고관 도서를 비교해 보면 『규장총목』에 수록된 도서 105종 가량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대신 185종 가량의 도서가 새로 등장한다.⁵⁷⁾

그리고 『규장총목』에서만 확인되는 책 중 일부는 『규장각서목』 a의 『이문원서 목』에서 확인된다. 이 책에는 대부분 이문원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개중에는 다른 장서인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유일본으로 전하는 『姑蘇志』는 金光遂(1696~?)의 장서인과 摄文院의 장서인이 있는데, 당초 金光遂의 장서가 열고관을 거쳐 摄文院으로 이관된 경우라 하겠다. 한편 홍문관의 장서가 함께 있는 경우는 정조대 규장각으로 이관된 홍문관의 구건으로 홍문관, 개유와·열고관을 거쳐 이문원에 이관된 장서로 보인다.⁵⁸⁾

이처럼 도서의 반출과 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고나 이문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정조대의 『서서서목초본』과 『규장각서목』 a의 「서고서목」을 비교해보면 214종 가량의 도서가 외부로 나가고 480종 가량의 도서가 새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다. 『규장각서목』 a와 『규장각서목』 b의 「이문원서목」을 비교해 보아도

57) 이 글에서의 種數는 서목 상에서 한 행을 차지하고 있는 서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같은 책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8) 이문원 장서인이 찍힌 도서는 옥영정이 조사 정리한 바 있다. 옥영정, 앞의 논문, 〈부록〉 현존 구 시강원장서와 이문원장서의 비교 참조.

286종 가량이 반출되고, 91종 가량이 새로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도서 중에는 新刊도 있으나 다른 곳에서 이관된 도서도 많아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御製類의 출입이 심하다. 『규장각서목』 a와 『규장각서목』 b의 「이문원서목」을 비교하면 御製·御筆類 가운데 115건이 목록에서 사라졌는데, 이 중에는 哲宗의 御製·御筆이 일괄하여 포함되어 있다. 궐내에 御製·御筆을 봉안한 곳이 다양하였던 만큼 더욱 빈번하게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열고관, 서고, 이문원은 정조대 설치된 이래 고종대까지 그 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장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서의 수도 시기에 따라 증감하였다. 열고관의 경우 문헌각, 개유와, 연경당, 융문루, 융무루 서적의 이관과 국왕의 內下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서의 종수와 책 수 모두 늘어났다. 이에 비해 서고는 고종대에 책의 종수는 늘어났지만 책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여러 건이 있는 책들 중 그 일부가 지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들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는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통감부시기에 작성된 『규장각서목』 c는 규장각 장서를 樓上庫와 樓下庫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책의 종수는 『규장각서목』 b보다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그 사이 학부 이관이 있었던 탓에 도서 책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융희 3년(1909) 9월 간행된 『제실도서목록』에 수록된 도서는 103,680책이다. 『규장각서목』 c의 책수는 34,139책으로 규장각 장서가 제실도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3정도이다. 책수로 보면 집옥재 도서가 규장각 장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⁵⁹⁾

59) 자료의 종수는 한 행에 수록된 서명을 1종으로 직접 해아렸고, 책수는 자료에서 제시 되지 않는 경우 남권희, 송일기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규장총목』 책수: 송일기, 앞의 논문, 453면.

* 『서고장서록』, 『서서서목첩록』, 『서서서목초본』 책수: 남권희, 1983 앞의 논문, 180면.

* 서고별(1907~1914) 책수

규장각: 『奎章閣書目』(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1706)

홍문관: 『奎章閣書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636)

집옥재: 『集玉齋書籍目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1676)

시강원: 『春坊藏書總目』(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1671)

〈표 6〉 규장각도서의 규모 변동

구분		서고 서목	열고관	서고	이문원	규장각	홍문관	집옥재	시강원	북한 행궁	제실 도서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종수	규장 총목	697											
	서고장 서록		1,364										
	서서서 목첩록		1,237										
	서서서 목초본		1,206										
	규장각 서목 a	1,006	1,416	865									
	규장각 서목 b	1,529	1,351	670	(3,550)								
	서고별 (1907~ 1914)				3,799	572	2,430	879	424	5,493	1,216	854	
책수	규장총 목	20,251											
	서고장 서록		20,914										
	서서서 목첩록		25,207										
	서서서 목초본		27,798										
	규장각 서목 a	*	15,860	*									
	규장각 서목 b	25,301	8,912	6,050	(4023)								
	서고별 (1907~ 1914)				34,139	7,201	40,586	20,116	4,934	103,680	5,785	4,666	

북한행궁: 『北漢冊目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26740)

제실도서: 『圖書冊數表』(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26761)

태백산사고: 『太白山史庫圖書目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26738)

오대산사고: 『五臺山史庫藏書目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26735)

1907년 규장각 장서는 집옥재, 춘방, 홍문관 소장 도서와 함께 ‘제실도서’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11년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태백산과 오대산 사고, 구관조사사업의 수집자료 등과 통합되었다.⁶⁰⁾ 1914년 12월 당시 조선총독부 소장 고도서는 137,741책에 이르렀으며, 1921년 8월까지 165,000책으로 늘어났다.⁶¹⁾ 이 가운데 원래의 규장각 장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채 1/4이 되지 않는 셈이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도서는 원래의 규장각에서 연원한 책도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서고나 관청 등에서 이전되어 온 책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들이 어디에서 옮겨 온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집옥재, 시강원, 홍문관, 보문각, 대축관, 승화루 등 궁궐내 다른 서고와 규장각 사이의 상관관계와 각각의 특징을 밝히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4. 맺음말

『규장각서목』은 고종·순종대에 작성한 규장각 소장 도서의 목록이다. 중국본을 소장한 열고관, 조선본을 소장한 서고, 그리고 규장각의 집무처인 이문원 소장 도서의 종합목록이다. 이 서목은 『규장총목』과 『서고장서록』, 『서서서목첩록』, 『서서서목초본』으로 이어지는 정조대 규장각 장서의 전승 양상을 보여주는 한편 고종·순종대 규장각의 장서 현황과 그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규장각서목』을 통해 규장각 장서의 역사와 함께 장서의 변동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전하는 『규장각서목』 3종은 각각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각기 다른 특

60) 조선총독부는 이렇게 형성된 도서의 조사를 마친 후 1921년 10월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을 간행하였다. 그 후 1934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누락된 도서를 조사하여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를 간행하였다.

61) 김태웅, 2009 「일제강점기의 규장각」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92면.

성이 있다. 고종 14년(1877)부터 고종 26년(1889)까지의 내입기록이 있는 장서 각 소장 『규장각서목』 a는 정조대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을 계승한 전통 시대의 장서문화를 반영한 책이다. 반면 건양 원년(1896)부터 광무 6년(1902)의 내입 기록이 있는 규장각 소장 『규장각서목』 b는 대한제국기의 근대화 노력을 반영한다. 그리고, 고종 퇴위 후에 작성된 『규장각서목』 c는 전통시대의 여러 서고가 해체되고 제실도서로 통합되는 과정의 규장각 장서를 보여준다.

『규장각서목』에 반영된 규장각 장서는 고정적이지 않다. 정조대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초본』으로 정리되었던 규장각 장서에는 문헌각, 연경당, 용문루, 용무루, 춘안당, 내하서적 등이 유입되었다. 반면 국왕의 독서를 위해 꾸준히 내입이 진행되었고, 대규모로 학부로 이관되는 등 외부로 유출되는 책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서적들이 궐내의 여러 서고들을 오가고 있었다.

궐내에는 규장각 외에도 홍문관, 대축관, 문헌각, 승화루, 용문루, 용무루, 춘안당, 집경당, 집옥재, 시강원, 봉모당 등 많은 서적 소장처가 있었다. 규장각은 이 서고들로 이루어진 국가 도서관 시스템 내에서 일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 서적들은 본래의 소장처가 있었지만 반드시 한 곳에 고정적으로 비치된 것은 아니었다. 각 기관에 소장된 서적은 필요에 따라 국가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었다. 규장각 장서도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도서는 원래의 규장각 뿐 아니라 집옥재, 홍문관, 시강원, 사고, 각 관서, 지방 관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보관되거나 생산된 도서와 고문서 등을 포함한다. 정조대 규장각 도서를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에서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국가의 장서와 행정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양적으로는 원래의 규장각 장서보다 다른 곳에서 이전된 자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장각도서를 검토할 때에는 이 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 규장각도서의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권 한 권의 책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곳에 도달했는지 추적해야 한다. 서목을 이용한 이해는 단

지 그 출발점이 될 뿐이다. 앞으로 각 장서의 유래에서부터 개별 서적의 이동, 상태와 활용, 관리 등에 이르는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奎章閣, 閣古觀, 西庫, 摘文院, 『奎章閣書目』

투고일(2015. 5. 14), 심사시작일(2015. 5. 20), 심사완료일(2015. 6. 12)

〈Abstract〉

Examination on the Collection of Books in Gyujanggak
through the *Gyujanggak Seomok*(『奎章閣書目』)

Park, Hyun Soon *

Gyujanggak Seomok(奎章閣書目) is a full list of the books from Gyujanggak(奎章閣, Royal Library) written during the reign of Gojong and Sunjo. It is a compilation of the list of books from three places; Yeolgogwan(閱古觀) where books of China were collected, Seogo(西庫) where books of Joseon were collected, and Yimunwon(摘文院) which was an associated office of the Royal Library. Existing three kinds of *Gyujanggak Seomok* which were written with some time differences provide clues to restore the collections of the Royal Library. This article examines the situation and changes of the collections from the Royal Library during the reign of Gojong and Sunjo through the Gyujanggak Seomok.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wo issues. First, it explores the current condition, written period, and characteristics of each book lists as a basic investigation of three kinds of the *Gyujanggak Seomok*. Second, it examines the transfer and changes that occurred to the collection through the *Gyujanggak Seomok*. From this,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management of the books by the state with the Royal Library at the center, and the feature of the pre-modern culture of the book collections.

Key Words : *Gyujanggak*(奎章閣, Royal Library), *Yeolgogwan*(閱古觀), *Seogo*(西庫), *Yimunwon*(摘文院), *Gyujanggak Seomok*(『奎章閣書目』)

* Assistant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